metro
메트로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4박 5일의 기한 일정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동 그리고 '큰 울림'

4박 5일간 희망의 손길로 낮은 곳 보듬고 떠나다
세월호유족 위로, 청년 일깨우고 한반도 평화 기원

'이땅에 평화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사적인 방한 일정을 마치고 18일 교황청으로 떠났다. 총 이동거리 1000km에 달했던 교황의 행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다.

◆비극을 위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 교황은 공항에 영접 나온 세월호 유족들을 가장 먼저 위로했다. 한 손은 가족들에게 다른 한 손은 자신의 가슴에 올리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성모승천대축일미사'를 집전할 때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리본은 이 때부터 방한 일정 내내 교황의 왼쪽 가슴에 붙어 있었다. 공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리본은 제자리를 지켰다.

교황은 이 미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적 대재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표현하며 희생자에게는 평화를, 아들을 잃은 이들에게는 격려를 기도했다.

16일 90만 인파가 모인 서울광화문광장 시복미사에서 교황은 카퍼레이드 도중 세월호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47)씨의 두 손을 부여잡은 채 잠시 기도했다.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다시 청년을 일깨웠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한은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이 주목적이었다. 그동안 행적에서 청년들에게 각별함을 보여왔던 교황은 아시아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희망과 용기를 얘기했다.

15일 당진의 솔뫼성지를 방문한 교황은 청년들에게 분열과 폭력, 편견을 거부하고 물질과 권력 쾌락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어떠한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청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17일 서산 해미읍성을 찾은 교황은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했다. 이 자리에서도 청년들에게 세상에 대한 용기를 주문했다. 교황은 "사회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녔으니 두려워말고 모든 측면에 신앙의 지혜를 불어넣으라"고 말했다. 이어 "도움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연민과 자비, 사랑으로 답하라"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화합과 용서를 이야기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일정은 18일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얘기한 미사였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명을 비롯해 새터민, 납북자 가족, 북한 출신의 사제·수녀·평신도 등이 초청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기관을 대표하는 10여명도 초대됐다.

이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교황은 '용서'를 당부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죄 지은 형제들을 남김없이 용서하라"며 "한국인으로서 이제 의심·대립·경쟁의 사고방식을 확고히 거부하고 한민족의 고귀한 전통 가치에 어긋난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길" 희망했다.

교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해 관대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한국인이 같은 형제자매이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미사 전 12명의 이웃종교지도자들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었다. 교황이 이 자리에서 꺼낸 말도 다름 아닌 화합이었다.

/이학철기자 kmc0014@metroseoul.co.kr

석촌지하차도 동공 5개 또 발견
인근 주택가 안전하다지만 시민 불안

길이 80m 규모의 거대한 동공 등 2개가 발견된 서울 석촌지하차도에서 동공 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현석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난 14일 석촌지하차도(지하철 919공구) 도로 함몰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가한 조사단의 중간조사 발표 이후 동공 5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확인된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종점부 램프구간에 폭 5.5m, 연장 5.5m, 깊이 3.4m와 석촌지하차도 박스 시점 구간의 진수정 부근에 폭 4.3m, 연장 13m, 깊이 2.3m 등 2개다. 나머지 3개 동공은 세부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중이다.

현 본부장은 "발견된 2개의 동공 중 하나는 지난 16일 현장조사과정에서 '광역상수도 2000m'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시민조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응급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안에 떨고 있는 송파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발견 즉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비난에 현 본부장은 "확실한 원인이 안나온 상황에서 발표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안해 할 것이라는 판단에 안전조치를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근 주택가에 대한 안전도 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동공 발생 원인은 계속 조사중이다. 조만간 조사단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길이 80m 동공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문제의 구멍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터널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공간을 메우려면 15t 덤프트럭 140대 분량의 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 동의 임시개장 승인 여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롯데 측은 추석 전 개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돼 추석 전 개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근홍기자 mikim68

위안부 할머니 위로하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직전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침체 한국경제에 활력소 역할

교황 기념주화·우표 완판, 사용제품 전세계 홍보 효과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간의 방한 일정을 끝내고 출국했다. 25년만의 교황 방한이 주는 의미는 정치·사회·종교를 떠나 우리 경제에도 불황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한 이들도 많다.

이번 교황 방한에 대한 각 기업들의 기대도 상대적으로 컸다. 세계 주요 언론이 앞다퉈 교황의 일정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는 물론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지난 15일 시복식 당일 미국 CNN과 영국 BBC가 현장을 생중계하는 등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면서 이런 희망은 어느정도 충족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

검소함을 강조해 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단지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작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브라질 관광공사는 경제적인 효과를 5000억원대로 추산했다. 또 2008년 호주를 방문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경우 시드니상공회의소는 25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교황의 방한에 대한 경제적 수치를 내 논 기관이나 단체는 없다. 하지만 행사 기간이나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파급효과는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시복미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 호텔들은 객실 예약률이 100%를 기록했었다. 교황 방한을 기념해 발매한 우표는 총 130만장 중 지난 14일까지 단 3만 장만을 남겨논 상태였으며 18일 완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5억 4600만원 어치에 달한다. 기념주화도 예약판매 이틀 만에 2만5000건의 판매가 완료됐다.

롯데주류는 '마주앙'은 미사주 채택을 기념해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 마주앙은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행사에서 공식 미사주로 사용됐다.

파이트진로음료는 교황을 비롯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공식 먹는샘물로 '석수'가 지정됨에 따라 유·무형의 홍보실적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한달 사이 16% 급등했다.

교황의 의전차로 주목을 끈 기아자동차의 '쏘울'도 국내·외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 역시 매출 효과가 잠재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개방기자 jyms@metroseoul.co.kr

시위 대처 시민 불편 없게 해야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레저부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광복절에 모든 이목이 쏠려 있던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경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의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유가족과 추모객 등 전국 각지에서 1만2000명(경찰 추산) 정도의 인원이 참여했으며 집회 후 이들은 거리 행진을 하고 청계천 관수교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집회 후에도 일부 인원은 종각역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한 채 2시간여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 일부는 청와대로 가기 위해 경찰 병력을 밀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한국역 등 청와대로 이동하는 길목마다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며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다행히 다음 날로 예정된 교황의 시복미사에 대비해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9000여 명을 배치한 경찰 덕분에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집회 인원과 큰 차이가 없는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투입한 경찰이 문제였다.

시위대의 이동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시위대가 이동하는 곳은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막으며 일반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가로막았다. 더욱이 시위대의 이동에 따라가는 일장의 경찰은 방패와 소화기 등을 손으로 들고 인도에서 뛰면서 이동해 시민이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연출했다.

교황 시복 미사라 이해는 가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은 내팽겨쳐졌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민중의 걸림돌, 시민의 발을 묶는 족쇄가 된 것이다. 경찰이 불법 시위를 막는 것도, 교황의 시복 미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언제나 최우선이 돼야 한다. 이것이 기자만의 생각일까.

뉴스&뉴스

靑 "내실 위해 규제개혁 장관회의 연기"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려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17일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출석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변호인 통역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시작…29일까지

●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희호 여사 'DJ 추도식' 헌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이희호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혁신 회의체 신설 논의

노사정위 오늘 재개

지난해 9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가 19일 재개된다.

18일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에 따라 19일 정오에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6차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와 산업안전 관련 회의체 신설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했다. 이날 노사정위 주요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여부도 다룬다.

본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대표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조현정기자 hjc@

'철도 마피아' 현역의원 두번째 연루

송광호 피의자 신분 소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송 의원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철도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고인 조사를 벌여 송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철도 마피아와 관련해 현역의원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두 번째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현정기자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음란행위 나 아냐…경찰 오인" 해명 하루 뒤 사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결국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며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의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양은 12일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도망가는 듯한 한 남성을 붙잡았다.

김 지검장은 유치장에 입감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 동생의 이름을 말했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과 지문이 다르게 나오자 나중에 스스로 이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김 지검장은 17일 "조직에 누가 될까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적 실수를 조직논리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 검경이 유병언 사건 이후 다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음란행위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찍힌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 영상 속에 나온 남성이 김 지검장이 맞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2~3일 후 나온다.

/김현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가을을 부르는 비' 서해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흐리고 비가 내린 18일 우산을 쓴 시민이 서울 청계광장 인근 수크령 옆길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에야 軍 자살현황 관리

40%가 관심사병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병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관심사병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두 해 동안 자살한 사병 83명 가운데 관심사병은 40%인 3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자살한 사병 38명 가운데 15명이, 지난해 자살한 사병 45명 중 18명이 각각 관심사병으로 지정된 병사들이었다. 계급별로는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일병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병이 14명, 상병이 4명이었다. 이들 중 1명(공군)을 제외한 나머지 32명(97%)은 육군 소속이었다.

서 의원은 "관심사병의 자살이 빈번한데도 국방부는 2012년에서야 자살자 현황을 집계하는 등 관리를 시작했다"며 "현재의 관심사병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ydh@

병영문화 혁신 토론 경청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군 장병과 참석자들이 기조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장관-교육감들 첫 만남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이달 말 공식적인 자리를 갖는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황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 간 상견례가 27일 전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만남 요청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연락을 돌려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 또는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리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처리,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묘수가 나올지 주목된다.

/윤다혜기자

김형식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1차공판 혐의 전면 부인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판이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제11형사부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44)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정민준기자

구룡터널 화재 진압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구룡터널 앞에서 2014 을지연습 터널폭탄테러 대비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 비상 및 재난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펼쳐지는 이 훈련은 21일까지 3박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연합뉴스

서울 24년간 걷은 주정차 과태료 2조 넘어

24년간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199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090만608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10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징수한 금액은 1조 6160억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혔다.

주정차 위반 건수와 부과된 과태료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각각 621만340건, 254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중구(440만2220건, 1816억원), 서초구(392만9093건, 1610억원)가 건수가 많았다.

서울시는 징수한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 주차장 건립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김현준기자

내일 민방공 대피훈련

20일 오후 2시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에서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국가비상시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18~21일)의 일부분이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적의 공습 때 비상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긴급차량 기동훈련과 주민대피 시범훈련이다.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과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윤다혜기자

'비상급유 서비스' 암체족 늘어

일주일 단위 보험 갱신 2년간 469회 주유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악용해 1000만원 가까운 공짜 주유를 받은 얌체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8일 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시내에서 꽃배달업에 종사하는 임씨는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하면 3회의 비상 급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의 자동차로 469회에 걸쳐 모두 890만원어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자동차 보험을 최소 기간인 1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450원짜리 비상급유 서비스를 추가 가입해 비상 급유나 오일 보충 등의 명목으로 주유하는 행태를 되풀이했다.

자신의 차량이 마치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접수시켜 회당 3ℓ 급유 서비스를 맡기는 경우에 세 번씩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문기자

변호사들 "전관예우는 계속"

서울변회 설문 80% "어떤 형태로든 존재"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또 5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달 14일부터 8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9%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5%가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뢰인들이 전관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였고,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9.4%였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3.4%) ▲재판 모니터링 강화(18%)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5.9%)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5.9%) 등을 꼽았다.

/윤다혜기자

개학 "건강해졌구나" 19일 오전 여름방학을 끝내고 등교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팔씨름을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정보 빼돌린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현대자동차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이모(53)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부터 현대차 인도 영업법인에서 관리기획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둔 마케팅 자료 등 내부 문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료에는 새로운 차종의 예상 가격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metro HongKong

深圳笨賊搶錢碌卡

metro France

Sports extrêmes : deux bas[e] [jumpers] tuent dans les Alpes

알프스서 베이스 점핑 두 남성 사망

최근 프랑스 오트사보아 지방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서 베이스 점핑(절벽 점프)을 하던 호주출신 남성과 프랑스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33세 호주 남성은 낙하산 조종에 문제가 생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55세 프랑스인의 경우 1500미터 고도에서 뛰어내리던 중 낙하산에 문제가 생겨 사망했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알프스 산맥에서 극한 스포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metro Brazil

em ir à aula mesmo sob greve, orienta prefeitura

"선생님 없는데 학교 가라고?"

브라질 남부의 쿠리치바시에서 교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등교할 것을 권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수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당분간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켜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교직 개혁안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교원노조는 최근 시 의회 앞에서 집결해 시청으로 행진했다.

36일간 철사침대 위에서 생활

여성 행위예술가 밥먹고 자는 등 '작품 활동'…나체 퍼포먼스 논란

중국의 여성 행위예술가 저우제(周劼)의 독특한 행위예술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베이징의 쳰싸이 갤러리에서 중국 예술 명문학교인 중앙미술대학교 조각과를 졸업한 젊은 예술가 저우제는 철사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36일'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시작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저우제는 완성되지 않은 철사 침대와 철사로 5채의 비완성 부제 인형이 놓여있는 장소에서 36일 동안 평소처럼 밥을 먹고 씻고 화장실을 가는 등 '생활'을 하게 된다.

저우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철사 조각 작품을 완성시키는 데 보내고 피곤하면 침대에서 휴식한다. 전시실 2층에는 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1달 여간 먹을 음식과 옷 몇 벌, 투명한 쓰레기통 세 개도 놓여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가 나체로 침대에 누웠었는 행위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무슨 의도로 나체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우제는 나체로 철시침대 위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인터넷에서 화제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36일 동안 자신의 생활을 완전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나체로 누워있을 수도 있고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 미리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체로 누워있는 장면을 선택한 것은 직접 만든 침대와 나의 관계를 부각시킬 수 있고, 실제로 잠을 잘 때 옷을 입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찾은 남자친구는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은 비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쁨을 가지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를 격려했다.

저우제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을 '개방성'과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그는 "네티즌의 의견도 작품의 일부로 작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요소"라며 "작품은 거울과도 같이 세상 만사를 비춘다. 다른 사람도 비추고 내 자신도 비춘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Инвалидность не мешает яхтсменам

장애인과 요트선수 '용감한 항해' 눈길

러시아에서 장애인과 전문 요트선수로 구성된 '영혼의 돛' 요트팀이 용기있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올렉 콜라쉬코프(41)를 단장으로 하는 영혼의 돛은 2011년 결성된 후 지중해, 발트해, 카리브해 아조프해 흑해 등을 다녔다.

콜라쉬코프는 "우리 팀은 전문 요트 선수와 장애가 있는 멤버로 구성됐다"며 "철저한 적응 훈련과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팀워크로 장애를 극복하고 항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스무살 때 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라트비아의 리가를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헬싱키를 경유해 리가로 돌아오는 1000마일 항해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콜라쉬코프는 "영혼의 돛 결성은 4년 전 세계 최초로 의족을 착용하고 뉴욕 마라톤을 완주한 세르게이 부를라코프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며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세계의 다양을 짐해하고 싶은 어릴 적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요트를 타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요트보다 자동차가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더 위험하지 않나"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우리 팀의 바람은 장애로 고통 받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영혼의 돛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영혼의 돛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을 전파하기 위해 앞으로도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나 즈게고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뉴스&뉴스

축령산 산소축제 성황 지난 16~17일 전국에서 가장 넓은 편백림을 보유한 전남 장성 축령산에서 열린 제7회 산소축제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뉴시스

연금복권 판매시간 연장

●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20일부터 연금복권 인터넷판매 마감 시간을 수요일 오후 5시에서 5시40분으로 40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첨은 기존대로 JTBC에서 수요일 오후 7시40분에 방송된다.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으로 당첨확률이 315만분의 1로 현재 판매 중인 인쇄식권 중 가장 높다.

연금복권 관계자는 "그동안 추첨 시간 확보를 위해 마감 시간을 5시로 운영해왔다. /정용회기자

카드 부정사용 1.8배↑

●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이 5만6000건에 달해 2010년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카드 이용 추세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부정사용액도 291억원으로 2010년 보다 1.7배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사용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위변조가 2만1000건으로 2010년보다 96% 늘었고, 카드정보도용은 2000건으로 276%나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안문제, 수수료 합리화 등이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wy@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평화궁길69(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3
독자센터	02)721-9861

2008년 5월 24일 창간 일간 서울 라00098

LG, 팬택 법정관리로 반사이익 볼까

삼성전자 60% 점유율 유지 전망… '아이폰6' 출시가 관건

팬택 법정관리 진행,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 격돌, LG전자 반사이익 등으로 스마트폰 업계는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3분기를 보내게 됐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팬택의 법정관리로 '삼성-LG-팬택'으로 나뉘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먼저 LG전자가 팬택의 법정관리 반사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것이란 예측이 우세다. 김지산 키움증권 전기전자부문 연구원은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팬택 고객 성향이 유사해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2년간 팬택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LG전자의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팬택의 몰락으로 국내 스마트폰 제조 여건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팬택의 1차 협력사인 200여곳은 직접 타격을 입으며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600여 업체는 실적 악화를 겪게 됐다. 부품 업체들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의존도가 커지면서 가격 협상력은 더욱 나빠진다.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이상 통신사업자들의 구매 물량 축소, 부품 조달 차질, 연구 개발과 마케팅 역량 훼손 등으로 사업 경쟁력은 쇠퇴될 수밖에 없다. 팬택은 2012년 국내 시장에서 304만대의 스마트폰 판매고로 15.1%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판매량 181만대로 점유율이 8.4%까지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올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통신3사 영업정지로 실적 타격을 입어 8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팬택의 1분기말 자본총계는 -489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이 때문에 통신사 영업정지의 희생양은 정작 통신사가 아닌 팬택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다음달 초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6도 LG전자에 호재란 분석이 많았다.

박강호 박기범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이폰6 출시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에 희소식이다. 이 두 기업은 LG전자 스마트폰에도 부품을 지원하는만큼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는 아이폰6에 대항해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금속 테두리를 적용한 신제품 갤럭시 알파를 공개했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가 플라스틱을 택한 것과 다르게 갤럭시알파는 금속 재질을 선호하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갤럭시 알파 공개 당시 신종균 삼성전자IM부문 대표는 "갤럭시 알파는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과 갤럭시 스마트폰만의 차별화 사용 경험이 조화를 이룬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S5 파생제품인 갤럭시 알파는 다음달부터 세계 150여 개국에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팬택 반사영향과 신제품 기대감 등에 힘입어 약 8490만대로 전분기대비 1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을 조금은 만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윤희기자 uniqus@metroseoul.co.kr

코스피 5거래일만에 하락 1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9포인트(0.49%) 내린 2053.13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롯데제과·아모레 '황제주' 연일 강세

액면분할론 고개 들어

롯데제과 LOTTE

주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황제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덩치가 큰 고가주를 중저가의 여러 주식으로 잘게 쪼개는 액면분할론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200만원이 넘는 황제주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아모레퍼시픽으로 늘어났다.

황제주의 포문을 연 종목은 롯데제과였다. 지난 달 2일 롯데제과는 하루 만에 8만6000원 치솟아 202만2000원의 종가로 주당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이어 롯데칠성이 지난 5일 전 거래일보다 7만원 가까이 오르며 204만3000원의 종가로 황제주 대열에 합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3일 206만8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세 번째 황제주에 등극했다.

그러나 황제주를 포함한 고가주는 대주주와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높고 변동이 거의 없어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한계가 있다.

롯데제과만 해도 대주주가 총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외국인이 들고 있는 비율도 40%에 육박한다.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53%, 22%가량인 롯데칠성과 49%, 32%인 아모레퍼시픽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들의 대량 거래는 주로 저가주에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 강세 흐름을 타고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1만주 이상 '대량' 주문한 건수가 하루 평균 주문량이 2만6628건으로 지난 1월 대비 26.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의 총 주문 건수에서 대량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은 미래산업(11.38%), 유니켐(9.26%), 우리들제약(9.23%), 수날생명과학(8.04%), 동양(7.94%), 우리종금(7.56%) 등 1000원 미만의 저가주가 주를 이뤘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가주의 액면분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기대감을 표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달 주가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hloen1@

사내폭력 심각

직장인 10% 경험

직장내 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9.7%가 직장 내에서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12.2%)이 여성(6.4%)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들이 당한 폭력의 유형으로는 손바닥으로 맞음(39.8%,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주먹으로 맞음(29.6%), 서류 등 도구로 맞음(25.5%), 밀쳐짐(20.4%), 멱살·머리채 잡힘(20.4%), 다리로 차임(19.4%), 꼬집힘(17.3%), 던진 물건에 맞음(13.3%)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을 가한 상대는 상사(62.2%,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많았다. CEO·임원(27.6%)이 뒤를 이었다.

폭력을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55.1%)은 대응하지 않은 채 참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70.4%), 상대와 갈등을 겪기 싫어서(40.7%), 퇴사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8.9%), 다들 참고 있어서(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국명기자 kmlee@

은행권, 추석 앞두고 돈보따리 푼다

자금난 中企·자영업자 위해 3조원 규모 특별 자금 지원

금융권이 내달 초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최대 3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동성 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달 23일까지 지원되는 자금은 신규자금 2조원 뿐만 아니라 지원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1조원도 포함된다. 특히 추석명절 특별우대금리 0.3%p(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근 국내의 경기상황으로 인한 자금난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위해 어느때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석명절 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또한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내달 26일까지 제공한다.

또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은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할인어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매출채권을 할인받는 중소기업에는 기존 영업점장 대출금리 감면 외에 0.3%p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은행들의 지원대책도 눈에 띈다.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산은행은 오는 10월 8일까지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모든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상품인 'BS한가위 나눔 특별대출'을 판매한다.

모두 5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이 상품은 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수출형 중소 제조기업 등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도 소비침체와 빠른 추석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을 우려해 전통시장활성화와 중소기업 특별자금 등을 포함한 '추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이자 부담 연 11만원 줄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780만명 혜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문의 변동금리 대출자의 평균 이자부담이 연간 11만4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은 금통위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면서 가계와 기업의 은행대출 관련 이자부담이 연간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의 1인당 이자부담 감소액은 11만4000원, 기업은 95만5000원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가계는 779만6301명, 기업은 100만2542곳이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순이자이익은 연간 2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만기 구간별로 금리민감자산과 부채를 배분한 뒤 금리민감자산에서 금리민감부채를 빼 산출하는 1년이하 금리갭이 25조7000억원인데, 민감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금리를 인하할 경우 순이자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의 순이자익 감소폭은 국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3조9000억원)의 7%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줄면서 부도율과 실업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은행의 대손비율이 감소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민지기자 minj@

은행들, 문화콘텐츠 투자 붐

기업銀, 800억 펀드 ·· 수출입銀, 해외 홍보자금 지원

은행권에 문화콘텐츠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영화 '명량' 투자 흥행을 계기로 향후 은행권의 문화콘텐츠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문화콘텐츠금융부'를 신설,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기업은행은 영화 '군도'와 '명량'을 비롯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아경든 일지', '끝없는 사랑' 등 문화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명량' 제작에 5억원을 투자해 적잖은 이익을 보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N.L.L-연평해전'에 투자 주관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에 발발한 제2연평해전을 그린 이 영화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은행이 투자를 결정하면서 블록버스터급 작품으로 거듭나게 됐다.

영화와 드라마 외에도 음악 부가판권 등 문화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3년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약 7500억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 부문에 4334억원을 진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우수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출입은행은 애니메이션 '점박이' 넷잡 외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수은은 지난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해외 홍보활동 자금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자금은 애니메이션 넷잡 외 백급 필름 프린트와 프로모션 각종 광고 홍보 활동에 쓰였다. /김민지기자

韓日 경제규모·글로벌 기업 경쟁력 격차 4배

주요 제조업은 한국 우위…글로벌기업 비교시 차이 커

한국과 일본간 경제규모와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면에서 4배 가량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간 경제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규모나 기업간 주요 지표에서 일본과 4배 가량 격차가 있고, R&D 지표도 차이가 크게 난다고 밝혔다.

18일 전경련 자체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액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다.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의존도도 많이 줄고, 제조업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추세다. 통신기기·섬유는 일본을 앞질렀고,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 잡았다.

또 한일 간 주요 제조업 대표기업을 보면 한국이 앞서거나 큰 차이가 없다. 전자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파나소닉에 비해 영업이익률은 4배가 넘고, 자동차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 철강,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3~4배 정도의 격차가 난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나타내는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한국이 64개인데 비해 일본은 231개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양국 모두 점유율 1위 품목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격차는 수년째 줄지 않고 있다.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양국 기업의 수도 일본이 57개인데 반해 한국은 17개에 불과하다.

전체 경제규모에서도 일본이 4배 가량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의 경우 양국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이 우리에 비해 4.01배 높은 수준이다.

주식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증시시가총액의 경우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3.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거래 규모의 경우 8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일본 엔화가 세계 외환 거래의 23%를 차지하는 3대 통화로 거래비중이 1.2%에 불과한 한국 원화와는 글로벌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단 수출지향적인 한국의 경제시스템상 교역과 수출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일본이 2013년 1000억 달러를 넘어 한국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ODA 규모도 일본이 6배 이상 높다.

국가 과학기술의 바로미터인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수에서 일본이 16명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아무도 없다. 유럽집행위원회가 2012년 기업의 R&D 규모를 기준으로 발표한 세계 R&D 2000대 기업에 일본은 353개 포함된 반면 한국은 56개 불과하다.

실제 2012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1조원이 넘는 한국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3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도요타, 혼다 등 29개사나 있다. 세계적인 정보회사 톰슨 로이터가 보유 특허수 등을 기준으로 작년에 선정한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 일본 기업은 28개 포함된 반면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전경련 엄치성 상무는 "최근 일본 기업이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우리를 추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kaci@metroseoul.co.kr

BMW 코리아 새로운 쿠페형 SUV X4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BMW드라이빙센터에서 BMW의 새로운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SAC·Sport Activity Coupe)인 X4가 공개되고 있다. X4는 주행성능이 뛰어난 쿠페형 디자인에 SUV(Sport Utility Vehicle)의 공간이 더해진 새로운 개념의 중형 모델이다. /연합뉴스

삼성SDI, 中 전기차 배터리 공략

18일 공장 기공식 … 2020년 매출 10억달러 목표

삼성SDI가 중국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삼성SDI는 18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위치한 까오신 산업개발구에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상진 삼성SDI 사장, 장원기 중국삼성 사장, 로우친젠 산시성 성장, 동쥔 시안시장, 글로벌 및 로컬 자동차업체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설될 시안 공장은 내년 10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중국에서 글로벌 배터리기업 중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셀 제품의 전 공정을 일괄 생산하게 된다. 순수전기차 기준 연간 4만대 이상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총 6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자해 2020년 매출 10억 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삼성SDI는 효과적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1월 자동차 엔진 피스톤 실린더 분야 중국 1위 생산업체인 안경환신그룹(이하 환신) 부동산 및 투자 전문업체인 시안고과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6월 합자사인 삼성환신(시안)동력전지 유한공사(이하 삼성환신) 설립을 완료했다.

삼성환신의 지분은 삼성SDI가 50%, 환신과 시안고과그룹이 50%를 보유하고 있다. 초대 대표에는 조대형 삼성SDI 전무가 선임됐다.

삼성환신은 내년 본격 양산을 통해 중국에 위치한 글로벌 로컬자동차(OEM)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내년 하반기 설립될 삼성SDI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합자사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양산을 시작해 본격 가동 첫해인 2016년부터 라인을 풀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이미 수주했다.

/이형석기자 hyung403@

18일 중국 산시성 시안시 가오신소유기발구에서 열린 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서 박상진 삼성SDI 사장(왼쪽 다섯 번째), 로우친젠 산시성 성장(왼쪽 네 번째), 동쥔 시안시장(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삼성SDI 제공

"불경기라 힘들다더니…"

기업들 지난해 접대비 9조원 '펑펑'

경기 불황에도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매년 늘어 지난해 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접대비 지출 신고금액은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그동안의 증가 추이로 미뤄 지난해 기업의 접대비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호화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09년 1조4062억원에서 2010년 1조5335억원, 2011년 1조4137억원, 2012년 1조2769억원, 2013년 1조2338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접대비 중 매년 법인카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던 룸살롱 지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 2009년 9140억원, 2010년 9963억원, 2011년 9237억원, 2012년 8023억원, 2013년 7467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과도한 음주문화를 경계하고,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을 점차 부도덕한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며 "법인카드 유흥업소 결제금지, 클린카드 도입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가 확산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접대비는 1999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실효성이 적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됐다.

/이진우기자 의 정용

"알짜 기업 찾아 맞춤형으로 준비하라"

잡코리아 하반기 공채 합격 노하우

"취업 공백 가능한 1년을 넘기지 마라"
"기업 이미지만으로 지원서 쓰지 마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좋은일 연구소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공채 대비 5가지 취업전략을 18일 공개했다.

◆취업 공백 1년을 넘기지 마라=2015년 2월 졸업생들이라면 되도록 올해 안에 취업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하고도 한참을 취업준비로 시간을 허비하는 구직자가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인사지원 할 때 지원 자격 요건을 벗어날 수 있어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인사담당자는 1년 넘도록 취업을 못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은 대기업만 공략하기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원직무에 대한 목표의식 갖춰라=기업들은 더 이상 베스트 인재를 뽑고자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좋은 학교 출신, 높은 토익점수면 취업이 보장 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무에 딱 들어맞는 적정인재(Right Person)를 뽑는 추세다.

직무에 대한 열정과 지식, 경험이 없다면 결코 취업이 쉽지 않다. 따라서 토익 900점을 넘기기 위해 몇 달씩 공부하는 것보다 목표하는 직무의 인턴 경험을 한 달만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수시 공채에 대비하라=과거에는 대기업 공채의 채용 시기가 9월에 집중됐다. 채용순서도 유명 대기업이 먼저 진행한 후 중공업, 금융업, IT, 식음료, 서비스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이런 공식이 사라지고 있다. 채용이 1년 간 꾸준히 진행된다. 계열사별 채용과 상시 채용이 대표적이다. 특정기간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지속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미지만으로 기업 선택하지 마라=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브랜드가 잘 알려진 기업이나 인기 있는 제품의 기업들을 선호한다. 이는 기업의 정확한 분석 없이 단순히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만을 놓고 입사 지원하는 것과 같다.

기업의 브랜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재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 있거나 업계에만 잘 알려져 있는 내실 있는 기업들이 숨어 있다. 취업을 할 때는 기업 분석을 한 후에 입사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맞춤형 전략으로 승부하라=기업과 직무의 특성에 따라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들어 서비스, 금융업의 경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자신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어필해야 한다. 자소서나 면접에서의 질문을 보면 실패했던 경험 극복 후에 자신의 달라진 모습 등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다.

IT의 경우 이와 달리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지식과 자격증에 대한 평가가 높다. 서류 또는 면접에서 별도의 기술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1년 새 5만개 없어졌다

금융권 일자리 감소 심각

금융권에 거세게 불어닥친 감원 여파로 금융권 일자리가 1년 사이에 5만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 보험업 취업자는 84만5000명으로 지난해 7월(89만4000명)보다 4만9000명(5.4%) 감소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심했던 2009년 9월(6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금융권 취업자 감소는 증권·보험·은행권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역시 합병을 앞두고 412명과 196명이 퇴직했고 6월에는 대신증권의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에서 302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 달에는 HMC투자증권에서 250명가량이 짐을 쌌다.

이달 들어선 현대증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보험업에서도 대규모 인력감축이 진행됐다.

상반기 삼성생명에서는 전직지원,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1000여명이 줄었고 교보생명에서도 15년차 이상 480명이 희망퇴직했다. ING생명과 우리아비바생명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상반기 한국씨티은행 등이 인력조정을 했다.

/김현정기자 hjkim18

21대 9 곡면 모니터 LG전자가 IPS디스플레이를 탑재한 34형 21:9 곡면 모니터(모델명 '34UC97')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격은 145만 원이다. /LG전자 제공

상반기 건설 수주 전년比 26.8%↑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49조 6551억원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한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지난해 동기 대비 6조 6758억원이 증가했다.

토목은 도로교량(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공사, 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평간 고속도로공사), 철도궤도(김포도시철도,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 상하수도(대곡담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시설공사)등의 SOC 기반시설 물량이 호조를 이뤘다. 기산치수(유수지 저류시설 양산천 내성천 개한공사 신천 개선예방사업)와 농림수산(산동-금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등의 하천정비시설과 관계시설 물량과 발전시설(태안화력9 10호기 신고리원자력 3 4호기)이 주사업이다. 조경(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조경공사), 기타 환경정비 물량도 골고루 증가해 전년도에 비해 49.9% 증가(14조 9946억원)한 결과로 집계됐다.

건축도 신도시중심의 신규주택(위례신도시아파트, 배성동단아파트, 행복도시 M1BL아파트)과 사무용 건물(한국동서발전 사옥 건축), 학교 병원 관공서(정부청사 보강공사, 서울대 연구동, 동의대 누리와 한의마을 영천지구 조성사업) 물량이 고루 증가해 지난해 동기 대비 34.6% 증가(7조 20억원)했다.

또 민간부문은 지난해 동기 대비 3조 8280억원이 증가(15.9%↑)했다.

/김두희기자 kim@

대출규제 완화, 수익형부동산 '반사이익'

대출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며 수익형부동산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값싼 이자로 돈을 얻은 시중의 자금들이 회복이 더딘 주택시장 대신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행된 LTV·DTI 완화 및 금리 인하 이후 지식산업센터·상가 등의 계약이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에서 분양 중인 '문정역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8월 이후 투자자들의 발길이 2배가량 늘었다. 현대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공급하는 현대지식산업센터 역시 비수기로 주춤하던 계약률이 8월 이후 증가, 최근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보다 사업자금을 충당하는데 많이 사용하곤 했다"며 "이번에 DTI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소득이 많은 사업자들이 추가 대출을 통해 새 사무실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50대 이상의 대출 비중은 올 6월 말 42.7% 수준으로, 은행권에서는 이 중 상당수가 집을 담보로 잡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W은행 관계자도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싸게 대출 받아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도 인기다. 반도건설이 세종시 1-4 생활권에서 분양한 '카림 애비뉴'는 분양 시작 한 달여 만에 90%가량 계약이 이뤄졌다. 나성산업개발이 지난달 분양한 '세종 모닝시티 2차' 역시 모델하우스 문을 연 지 2주 만에 70%가 분양됐다.

직접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양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웃돈 역시 상승세다. 송파 문정지구 내 상가의 경우 평균 30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위례신도시 중심 상권 1층은 5000만원이 넘는 웃돈을 줘야 살 수가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계속된 저금리로 주택보다는 수익형부동산으로 투자 트렌드가 바뀐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주택보다는 수익형 상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매달 일정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뜨고 있던 차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뒤섞이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다만 개별 상품의 입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a@@@@metroseoul.co.kr

카림애비뉴 상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는 투자자들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금액, 사업자금으로 활용
저금리 적용받아 빌린 돈으로 월세 상품에 투자

건설업계 문화 마케팅 효과 톡톡 한라가 오는 10월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최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에 20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라 제공

수도권 2기 신도시, 프리미엄 '억' 소리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아파트와 분양권 프리미엄이 연일 상한가다. 입주 후 도시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억 원씩 가격이 뛰었는가 하면, 분양시장 호황으로 분양권도 수천만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1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입주 막바지에 들어선 성남 판교신도시의 봇들마을8단지 휴먼시아 155㎡ 입주 후 프리미엄이 5억14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백현마을1단지 푸르지오그랑블 145㎡가 4억8300만원으로 2위를, 봇들마을9단지 금호어울림 144㎡가 4억47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판교에 얼마 남지 않은 분양권 중에서는 주상복합 알파리움이 지난 6월부터 전매가 허용돼 1단지 180㎡와 2단지 180㎡에 2억5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수원 광교신도시 역시 '억' 소리 나는 입주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자연&자이2단지 214㎡ 프리미엄이 3억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연&자이1단지 212㎡가 2억1400만원, 광교1차e편한세상 245㎡가 2억1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분양이 한창인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분양권 프리미엄도 강세다. 2015년 11월 입주 예정인 래미안위례신도시 131㎡, 131㎡, 133㎡의 프리미엄은 평균 9000만원이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골에그린프레스티지 119㎡가 6000만원의 웃돈이 붙었고,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 A-15 113㎡가 5500만원 올랐다.

다만 같은 2기 신도시라도 경부라인에 속해야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한강·파주의 경우 웃돈이 없거나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나타나고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강남에 속해 있는 위례를 비롯해 판교·광교·동탄2신도시 모두 전철망 또는 광역급행철도(GXT) 등의 영향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된 상태"라며 "여기에 기업 유치로 자족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웃돈이 붙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지방 아파트 전세 5년전 매매가 추월
대구 1737만원·광주 1495만원·세종 1365만원

대구·광주·세종 등 지방 아파트 대부분이 5년 전 매매가격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역별로 ▼대구(1737만원) ▼광주(1495만원) ▼세종(1365만원) ▼경북(693만원) ▼충북(558만원) ▼전북(285만원) 등의 순으로 2009년 매매가격이 2014년 현재 전셋값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5년 전에 매수를 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셋값 보다 더 싼 값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전세금 인상과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 집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2009년 매매가격보다 2014년 전세가격이 더 큰 지역은 대부분 지방·광역시가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금액이 매매값 상승분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대구의 매매값은 37%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매매값의 두 배 수치인 74%나 올랐다. 또 세종시의 경우 전세상승률(78%)이 매매상승률(25%)의 3배를 초과했다. 반면 ▲서울(2억3945만원) ▲경기(1억265만원) ▲인천(8897만원) 등 수도권 지역은 5년전 매매가격이 현재 전셋값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가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물량으로 살펴보면 2014년 7월 말 기준 전세가격 상한가가 5년 전인 2009년 7월 말 기준 매매가격 하한가보다 높거나 같은 아파트는 전국 22만578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가 3만8960세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3만7499세대) ▲대구(2만6154세대) ▲경북(2만3434세대) ▲전남(2만2106세대) ▲전북(1만3335세대) ▲경남(1만3291세대) 순이다.

전세 재계약 때 마다 오른 전셋값과 이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참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 조정의 우려가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고 최근의 공급물량 추이나 인근지역의 개발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급매물이나 희소성이 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두리기자 kimdr@

교육시장 다음 먹거리 '학습용 태블릿'

대교·교원, 스마트에듀모어 각축
오프라인 콘텐츠로 차별화 한계

어린이 교육용 태블릿PC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교, 교원과 같은 교육 대기업은 물론 스마트에듀모어처럼 요즘 뜨는 중소기업까지 스마트 교육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대교CNS는 영유아용 '꿈꾸는 달팽이 키즈 교육탭'을 최근 선보였다.

대교의 '꿈꾸는 달팽이' 콘텐츠를 엄선해 담았으며 총 245권의 콘텐츠를 활용해 유아기에 꼭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과 능력 계발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누리과정에 맞게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등 영역별 학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들의 사고력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아이가속 수학', 원리톡톡 과학동화, 생활동화, 샌드아트, 하모니 악기, 브레인 점프점프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또 동요, 명작동화 등을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기초 영어학습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으며 유아동 정서와 생활을 반영한 이야기를 독서와 연계한다.

꿈꾸는 달팽이 키즈 교육탭은 아이모드와 부모모드로 구분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모드에서는 사용시간 설정, 앱 잠금 설정기능 등으로 유해요소를 차단해 학부모의 고민을 덜 수 있다.

부모모드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영역 분석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 태블릿처럼 쓸 수도 있다.

7인치 태블릿이며 1.5GHz 듀얼코어 CPU를 탑재했다.

◆EBS 강의도 태블릿으로

스마트에듀모어의 태블릿은 EBS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EBS에듀모어태블릿'을 터치하면 오프라인 문제집과 스마트학습강의 프로그램을 골고루 학습할 수 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진도에 따라 오늘의 강의 학습과 동영상 강의가 제공된다.

종이 학습지를 대체하는 '스마트 지'도 유용하다. 국어와 수학을 수준별로 맞춤 학습할 수 있고 학습 성과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전래동화, 세계명작, 창작동화, 위인전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애니메이션은 185편은 담이다.

교원에서 출시한 올앤지 패드에는 전집 브랜드 올 스토리 '미숙 스토리북' 60권과 '창작영어동화' 30권을 e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읽어주기 기능을 활용하면 성우 목소리로 녹음된 책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영어학습콘텐츠인 올플레이잉글리시 10권과 독후활동 앱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의 교육용 콘텐츠 전용 앱스토어인 올앤지스토어 가입해 전집, 학습앱, e북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대교 경영기획실 송병철 씨는 "오프라인 콘텐츠만으로는 차별화에 한계가 왔다. 스마트기기에 대한 부모의 반감도 많이 줄어 지금이 스마트 교육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꼼꼼 IT 리뷰 - 소니 SRS-X3

'먹고 싶은' 빵빵한 사운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선이 따로 필요 없는 스피커가 인기다. 이른바 블루투스 포터블 스피커다.

초기제품들은 아무래도 급조된 탓에 무겁고 크고 음질 성능도 딸리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출시된 제품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가볍고 출시에다 버금가는 성능을 자랑한다.

소니가 선보인 SRS-X3(사진)가 좋은 예다. 제과점에서 파는 고급 스펀지 케이크처럼 생긴 이 제품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컬러를 뽐내고 있다.

850g의 가벼운 무게와 약 185×67×66mm의 콤팩트한 사이즈는 동급 제품 시장에서 최고 수준이다.

크기는 작지만 2개의 34mm 풀레인지 스피커를 탑재하고 10W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를 앞뒤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실제 식탁 위에 스피커를 놓고 댄스 음악을 들으면 비트가 울릴 때마다 특유의 파장음이 느껴진다.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전달하는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 기술을 적용해 클래식이나 무반주 곡을 들어도 깨끗하게 다가온다.

SRS-X3는 핸즈프리통화도 지원하고 외부 오디오 입력 AUX 단자를 갖춰 블루투스가 아닌 유선 오디오 입력으로도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다.

완전 충전 시 7시간 동안 음악 재생이 가능한 USB 충전식 내장 배터리를 탑재했다.

블랙, 레드, 화이트의 3가지 컬러며 가격은 19만9000원이다.

/박성훈기자

100Mbps가 월 2만원 KT는 최대 100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최저 월 2만원(다이렉트 할인 3년 약정 기준)에 이용할 수 있는 올레 인터넷을 18일 출시했다. /KT 제공

'파워 트위터리' 프란치스코 교황

8개 한국어 트윗 화제

Pope Francis
성 요한 바오로 2세님, 저희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약자를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같은 트윗에 국내 트위터리안이 열광하고 있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교황이 남긴 8개의 한국어 트위터가 매번 1만건 넘게 리트윗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트위터 코리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 기간인 13일부터 17일까지 8개의 한국어 트윗을 자신의 트위터 영문 공식 계정(@Pontifex)에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2개씩 트위터를 통해 자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교황은 지난 13일 바티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한국어 첫 트윗을 올렸다. 이 트윗은 바로 앞에 동일한 내용으로 먼저 올라온 영문 트윗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만3000여 회나 리트윗됐다.

한국에 도착한 14일에는 "한국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특별히 노년층과 젊은이들에게"라며 한국어 트윗으로 다시 한 번 기도를 올렸다. 이 트윗 역시 1만1000건이 넘는 리트윗을 발생시켰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트위터 언급량은 분당 184건으로 치솟았다.

17일에는 "교회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경건하고 낮은 자세로 가난한 사람들과 외롭고 병든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며 교회의 변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교황의 한국어 트윗은 한국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방한 기간동안 트위터에는 '한국에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단어 혹은 교황의 공식 영문 계정인 '@Pontifex'가 언급된 트윗이 38만 건을 넘어섰다.

/서승범기자 lorikos@

MS 업데이트 했을 뿐인데 PC 고장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PC가 망가졌다.

허황된 소리로 들리지만 현실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실시한 윈도 업데이트에 오류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의 PC가 망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한국시간) MS 커뮤니티 질의응답 게시판(answers.microsoft.com)에 따르면 지난 13일 MS가 단행한 업데이트를 실행하면 '블루스크린'(윈도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파란 화면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호소하는 유저의 OS는 주로 윈도 7의 64비트 버전이며 윈도 RT, 8, 8.1, 윈도 서버 2012, 윈도 서버 2012 R2등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법은 영어버전(support.microsoft.com/kb/2982791/en-us)에 있다.

/박성훈기자

"못 믿을 추석 선물세트 동향 설문조사"

업계 입맛 따라 제각각… 자사 주력제품 판매위한 '꼼수'
백화점 이용 한우·굴비, 일반 소비자는 1~4만원대 선호

유통업계 최대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각 업체가 잇따라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업체들이 내놓고 있는 설문조사 내용이 해당 업체의 입맛에 따라 편향된 결과로 양분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등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저렴한 선물세트를 주로 내놓고 있는 한 제조업계는 최근 계속된 경제 불황 등으로 올해 추석선물은 더 저렴한 상품을 구매 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통계를 내놨다. 하는 최근 한 백화점이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에 '주고 싶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설문 결과 '한우'와 '굴비'가 대세라며 20만원을 훌쩍 넘는 선물세트 물량을 대폭 늘렸다고 홍보한 것과는 정 반대의 결과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로 인해 해당 업체들이 자사의 주력 상품 판매를 늘리려는 의도를 두고 설문조사를 핑계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지난 17일 30~40대 소비자 2088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선물(현금·상품권 제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1394명(66.8%)이 추석 선물 비용을 '1만~4만원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조사에서 '2만~5만원대 가격의 선물에 편중됐다면 올해는 예보다 1만원이 내려간 것으로 불황의 여파로 인해 구매 예상 가격대가 하향 조정되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다.

추석 선물 구매 품목으로는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복합 식품 선물세트'와 온 가족이 즐겨 먹을 수 있어 실용적인 '스팸이나 참치 등 캔 선물세트'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22%(459명)와 16%(334명)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고급식용유 선물세트(15%·314명)'와 '과일·견과류 등 농산물(12%·251명)', '건강기능식품(11%·230명)' 비중이 두 자릿수로 나타났다.

받고 싶은 선물로는 '복합 식품 선물세트'를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32%(664명)를 차지했다. '스팸이나 참치 등 캔 선물세트'가 21%(446명), 명절 선물의 단골손님인 '정육'과 '과일·견과류 등 농산물'이 각각 11%(230명), 9%(181명)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롯데백화점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6일간, 전점에서 20대~60대 백화점 방문 고객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선호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한우'가 주고 싶은 선물(37.6%), 받고 싶은 선물(34.4%)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에서 각각 16.6%와 16.5%를 차지한 '굴비'가 올랐다고 홍보했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해당 업체가 의도하는 답을 해 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도된 질문을 하기 때문이다. 마치 공공연한 사실인냥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같은 꼼수는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기관에서도 비일비재로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할 때 특정 업체의 설문이나 트렌드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소신있게 여건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식·음료업계 '명품족' 잡기 열풍

건강 챙기는 프리미엄 식품, 백화점 해외 고급 디저트 매출 늘어

구찌·루이비통 등 고가의 명품만을 찾는 사람들을 소위 '명품족'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는 더 이상 패션업계에만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다. 최근에는 식품업계에서도 프리미엄 제품만을 찾는 명품족이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음료업계에서 명품족은 자신 또는 가족들이 먹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관련업계에서도 고급 성분만을 사용하거나 인공 첨가물을 뺀 제품이거나 해외에서나 맛볼 수 있던 디저트 등의 프리미엄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돌(Dole)코리아 '블루베리 아로니아 1ℓ주스'(사진 왼쪽)는 프리미엄 과일인 블루베리와 차세대 슈퍼푸드로 불리는 아로니아 100% 과즙을 1ℓ 용량에 담아냈다. 당도가 높고 풍질이 우수한 칠레산 블루베리를 사용했다. 세계 최대 아로니아 생산지인 폴란드산 아로니아를 사용한 '아로니아 1ℓ주스'는 체내 활성화 산소를 제거하는 폴리페놀이 포도의 약 80배로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히 높아 항염효과와 콜레스테롤 제거에 비만예방 등에 좋은 제품이다.

매일유업 '플로리다 내추럴 프리미엄 착즙 주스'(가운데)는 향료나 색소 등의 인공 첨가물은 물론 물 한 방울 넣지않고 생 오렌지·생 자몽을 그날 바로 짠 100% 프리미엄 주스다.

스타벅스 코리아 '천연 프리미엄 요거트'(오른쪽)는 경기 이천시 와우 목장의 1A등급 원유를 사용해 만든 무안정제·무방부제·무색소 제품으로 인공적인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유리병에 개별 발효해 신선함을 살렸다.

제과 디저트 브랜드 '몽슈슈'의 대표 제품인 '도지마롤'은 빵에 생크림을 곁들여 먹는 것이 아닌 생크림을 메인으로 가득 넣은 제품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브릭팝'은 과일을 아이스크림에 담은 생과일 아이스바로 포도·복숭아·자두·수박 등 과일 즙에 유기농 시럽을 더하거나 생과일 그대로를 썰어 모양을 냈다.

/정영일기자

기포 주류로 늦더위 식힌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꺾일 줄 모르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스파클링 와인이나 맥주 등의 미세한 기포가 입안에서 터지며 더위를 날려주는 주류가 생각난다.

깔끔한 허브 특유의 향이 혀를 감돈 후 달콤한 스프라이트와 기포의 경쾌함이 퍼지는 것이 특징인 아그와 그린라이트는 잔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다. 아그와에는 기포가 없지만 탄산음료인 스프라이트를 믹스하면 스파클링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된다.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술 '기네스'는 구운 보리를 사용해 진한 루비빛깔을 띤다. 맥주 발효 시 감에 의존하지 않고 수학자를 고용해 수치를 계산하여 맛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명품 맥주로 불린다.

스텔라아르투아의 퀼스너 맥주는 사츠 홉의 맛과 함께 옥수수의 부드러움이 더해져 상대적으로 가볍고 순한 맛이 특징이다.

달콤한 맛과 기포가 주는 짜릿함으로 여름철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버니니는 모스카토 품종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5% 알코올 도수로 자갑게 칠링해 가볍게 즐기기에 제격이다.

/송병철기자

KT&G '에쎄 체인지' 1억갑 돌파

국내 캡슐담배 3갑중 1갑

KT&G(사장 민영진)는 세계 최초의 초슬림 캡슐담배 '에쎄 체인지(ESSE CHANGE)' 패밀리가 국내 누적 판매량 1억갑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쎄 체인지 패밀리는 '에쎄 체인지 1㎎', '에쎄 체인지 4㎎', '에쎄 체인지W'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초슬림 캡슐담배 시장에서 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에쎄 체인지'는 2년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굵기가 얇은 초슬림담배에 캡슐을 적용하는데 성공한 첫 제품이다. KT&G의 혁신적 기술과 제품 개발역량이 반영됐다.

에쎄 체인지 패밀리 중 '에쎄 체인지 1㎎'는 시장에 선보인지 1년만에 600만갑 이상이 판매돼 5년 전 출시된 '에쎄 수 0.1' 이후 국내 출시된 신제품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브랜드로 기록됐다.

KT&G 염광섭 에쎄담당은 "에쎄 체인지는 이제 출시 1년을 갓 넘겼음에도 벌써 해외 수출을 시작할 만큼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다"며 "그동안 대학생층은 보통 초슬림 제품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에쎄 체인지 출시 후 부산·대구지역에서부터 대학생층의 인기를 얻으면서 수도권까지 그 저변이 확대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롯데리아 피규어 '인기'

롯데리아가 진행하는 '쿤토이 피규어'가 인기몰이 중이다. 롯데리아는 해당 피규어의 판매량이 20만개를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1일부터 8월 한 달간 불고기 장난감 세트와 데리 장난감 세트 구매객들에게 피규어 1개를 증정하고 있다.

해당 피규어는 디자이너 브랜드 쿤토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했으며 슈퍼맨·배트맨·원더우먼 등 피규어 3종으로 구성됐다.

큰 머리와 작은 몸통 등으로 귀엽게 과장된 이 피규어들은 레고 스타일로 팔·다리·머리·얼굴·몸통이 모두 분리와 합체가 가능해 각 캐릭터를 교체해서 조립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다. 피규어의 팔 부분은 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포즈도 연출할 수 있다.

피규어는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은 개당 1500원으로 피규어를 수집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송병철기자

토종 브랜드숍 글로벌 시장 넘본다

불황에다 포화상태 내수 벗어나 해외로
미국·동유럽 등 새로운 시장 공략나서

왼쪽부터 토니모리 뉴욕 맨해튼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홍콩 2호점, 미샤 슬로바키아 1호점.

화장품 브랜드숍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화 상태인 내수 시장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K-뷰티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는 물론 미국·동유럽 등 새로운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미 러시아와 체코에 진출해 있는 미샤는 지난달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1호 매장을 열고 동유럽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질리나는 기아 자동차 공장 등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산업도시다. 미샤 측은 슬로바키아가 동유럽권 국가들 중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고, 한국 기업들의 잦은 진출로 현지 친밀도가 높아 성공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미샤는 현지에서 반응이 좋은 BB크림을 중심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토니모리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토니모리는 맨해튼을 비롯해 올해 안으로 넥서스 버지니아,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에 20개 매장을 열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해외에 단독 매장 300여 개, 숍인숍 형태 매장 3500개를 열 계획이다.

더샘은 홍콩,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이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 문을 연 더샘의 캄보디아 1호점은 프놈펜의 대형 쇼핑몰에 단독 매장을 열었다. 글로벌 에코 콘셉트의 독특한 인테리어로 현지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중화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이달 초 홍콩의 쇼핑 번화가인 침사추이에 홍콩 2호점을 열었다. 회사 측은 올해 초 14번째 진출국인 홍콩 1호점이 빠르게 안착한 것에 힘입어 5개월 여 만에 홍콩 2호점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침사추이는 센트럴과 코즈웨이베이, 몽콕과 함께 홍콩의 4대 쇼핑 번화가로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홍콩은 전세계인이 주목하는 쇼핑 메카인 만큼 본격적인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테지원기자 jiw@metroseoul.co.kr

"연 매출 100억, 또봇 신화 이을 것"

완구 기업 영실업이 변신로봇완구 '또봇'에 이어 신제품 '바이클론즈'와 신작 TV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다.

영실업 한찬희 대표는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변신로봇과 차별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크로스 합체 기능을 적용한 바이클론즈를 출시했다"며 "연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또봇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바이클론즈는 바이크(Bike)와 클론(Clone)의 합성어로 어린이들이 실제로 타고 즐기는 자전거와 우주 별자리 등을 캐릭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바이클론즈 완구는 동물 로봇 4종과 휴머노이드 로봇 2종이 분리·합체해 변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29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완구 전문점에서 판매된다.

같은 이름의 3D 애니메이션은 지난 12일 SBS를 통해 방송을 시작했다.

영실업은 올해 바이클론즈 매출을 1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또봇의 성공으로 국산 캐릭터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했다"면서 "바이클론즈로 국산 캐릭터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실업을 미국의 마텔, 일본의 반다이처럼 오래가는 장수 완구 기업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콘텐츠 사업과 함께 완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모든 연령대의 제품 라인업을 갖춘 종합 완구업체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힐링 디저트·퓨전떡 전시'

참새방앗간과 키즈N런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용산 아트홀에서 '100세 건강 우리 아이부터'를 주제로 '힐링 디저트 체험&명품 퓨전떡 전시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퓨전떡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이들은 편식하기 쉬운 음식 재료를 이용해 직접 퓨전떡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 체험도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퓨전떡 100여 가지가 전시되며 전국 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인 퓨전떡 지도자가 직접 시연 강좌도 연다. 무료.

/황재용기자 hsoul38@

긴소매·반바지에 선글라스로 엣지를!

센스 만점 간절기 남성 패션

주말 사이 내린 비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까지 분다. 센스 있는 간절기 패션이 필요한 때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상·하의에 균형을 맞춰 주는 것만으로 손쉽게 간절기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긴 소매의 셔츠를 입었다면 하의는 반바지를, 반대로 상의가 반 팔인 경우 하의로는 긴 바지를 매치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긴 소매의 경우 밝은 색상의 셔츠나 스트라이프 패턴 티셔츠를 선택하면 한결 화사해 보인다"며 "대신 반바지는 상의보다 어두운 톤으로 입어야 세련된 룩이 완성된다"고 조언했다.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글라스는 햇빛을 차단하는 동시에 멋까지 더해주는 아이템. 올해는 거울처럼 비치는 미러 선글라스가 유행이다.

프로젝트 프로덕트가 선보인 'G5 미러 선글라스'는 청량감 넘치는 블루 컬러의 미러 렌즈가 생동감을 더해준다. 톡톡 튀는 색상에 반해 디자인은 심플해 미러 선글라스를 처음 착용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죽 팔찌로 트렌디한 느낌을 살리면 된다. 신발은 운동화보다는 톤 다운된 로퍼가 잘 어울린다.

/박지원기자

강강술래 "올 추석 한우 선물하세요"

불고기·곰탕·떡갈비 등 최대 5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에서 선보인 한우세트가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불황과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중저가 실속 상품에 대한 인기가 치솟으면서 예약판매 실적도 전년보다 30% 이상 뛰어올랐다.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 중이다. 이달 20일까지의 예약판매기간에 구매하면 10% 추가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0일까지 베스트셀링 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4만5000원, 한우불고기2호(1.5kg)는 6만3000원에 판매한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는 11만7000원)와 한우찜갈비1호(3.2kg)는 16만2000원)도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각0.7kg)는 13만5000원, 한우명품1호(등심1.4kg+안심0.7kg)는 21만6000원. 등 프리미엄 선물세트에는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스치환(MAP) 포장'을 도입했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여 상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500ml 5팩·15인분)는 3만4900원, 소용량세트(350ml 6팩 10인분)는 2만25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갈비살만 사용한 '진짜한우떡갈비세트(3박스·1.08kg)'도 3만7800원에 제공한다. 이밖에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1호(16대)와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모두 8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강강술래의 모든 정육 선물세트는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원단을 사용한 보냉가방을 통해 신선하게 배송되고 있다.

/정혜현기자 hjung0414@

잘 나가는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업계, 신기술 접목 출시 붐

최근 전동파운데이션·전동클렌저·제모기 등 집에서 스스로 가꿀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란 전문샵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외모관리를 할 수 있는 전동기기다. 업계에서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뷰티 디바이스를 대대적으로 선보이면서 바르는 화장품, 먹는 이너뷰티 제품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클라리소닉(사진)은 최근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다. 소닉 음파 진동 칫솔을 개발한 과학자들에 의해 탄생된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17개 이상의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초에 300회 좌우 회전방식으로 기존 클렌징 방식 대비 6배 더 뛰어난 메이크업 클렌징 효과가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 브랜드는 백화점 매장을 통해 최근 매출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안을 돕는 클렌저 외에도 주름을 개선하는 리프터, 가정용 안티에이징 레이저, 발 관리기 등 다양한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트리아뷰티는 가정에서도 전문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레이저 뷰티 디바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제모기 '트리아 플러스 레이저 제모기'와 전문 여드름 치료기 '트리아 스킨 퍼펙팅 블루 라이트'가 인기를 끈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가정용 프락셀 레이저 '트리아 스킨 리쥬브네이팅 레이저'를 출시하며 안티에이징 시장에도 진출했다.

풋 케어 브랜드 숄(Scholl)이 최근 국내 시장에 선보인 전동 발 각질관리기 '숄 벨벳 스무드 익스프레스 페디'는 발의 굳은 살과 각질을 쉽고 빠르게 제거해 전문샵을 가지 않아도 스스로 발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최근 아모레퍼시픽도 '메이크온(MakeON)'을 론칭하며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메이크온은 감각적인 제품을 디자인하는 섬세한 감성을 뜻하는 "메이크(Make)"와 혁신적인 뷰티 솔루션을 연구하는 과학적 이성을 뜻하는 '온(ON)'을 합친 것. 화장품 성분이 아닌 에너지에 의해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효과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정해련기자

다시 뜨는 90년대 화장품

브랜드 리뉴얼로 소비자 공략

1990년대에 큰 사랑을 받았던 화장품 브랜드들이 속속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장수 브랜드는 소비자와 두터운 신뢰를 구축한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급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최근 소비자에게 외면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변덕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업체들이 새 단장을 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엔프라니의 경우 모기업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빨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담은 세컨 브랜드 '디어 바이 엔프라니'를 지난해 말 론칭했다. 디어 바이 엔프라니는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올리브영 전용 브랜드로서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해 엔프라니보다 더 신선하고 젊은 이미지를 준다. 업체 측은 론칭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베이스 메이크업 라인 출시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경의 에이솔루션은 올해 초 브랜드 전면 리뉴얼을 단행했다. 에이솔루션은 1998년 애경과 여주대 의대 피부과학교실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여드름 화장품이다. 10대 전용 여드름 화장품에서 벗어나 20대 트러블성 피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리뉴얼을 실시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2003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여드름 연구소(Acne Research Institute)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패키지 역시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디자인해 전문성을 강조했다.

에뛰드 코리아나 화장품은 1999년 컬러 마케팅의 붐을 일으켰던 엔시아를 리뉴얼해 '엔시아 에이징 컷'으로 재출시했다. 엔시아는 오렌지색 엔시아, 초록색 엔시아, 로 불리며 20~30대에게 큰 호응을 얻어 단일브랜드 누적 미출액 2000억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라인 제품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리뉴얼을 마친 엔시아 중 수분과 브라이트닝 효과를 동시에 주는 아쿠아&화이트 라인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 총 해외 10개국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정해련기자 h_gone0404@metroseoul.co.kr

물놀이 상처, 습윤밴드로 치료하세요!

세균 침입막게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씻도록

계곡이나 바다, 워터파크 등은 여름철 더위를 피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지만 물놀이를 할 때는 옷차림이 가볍고 움직임이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처가 생겼다면 빠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상처로 인한 피부 손상은 세균 침입이 쉬워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놀이 상처는 보통 워터파크에서 발생하기 쉽다. 놀이기구 등을 이용하다가 살이 쓸려 찰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부드럽게 상처를 씻어내야 한다. 팔이나 다리 등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쉬운 곳이라면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신축한 1차 치료가 필요하며 습윤환경을 유지해 상처 치유에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또 계곡이나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는 뾰족한 돌이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발을 찔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고 고통이 심해 맨손으로 상처를 만지는 경우가 많은데 손으로 상처를 만지지 말고 일단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상처가 덧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때도 방수 기능이 있는 습윤밴드를 사용해 상처를 보호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르네상스 서울 호텔, 주말 패키지 선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낭만적인 계절 가을을 맞아 다음 달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심에서 낭만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Falling in LOVE 패키지'를 선보인다.

금~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되는 패키지(세금·봉사료 별도)는 ▲Falling in LOVE 패키지 Ⅰ ▲Falling in LOVE package Ⅱ ▲Falling in LOVE package Ⅲ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공통 혜택으로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과 르네상스 레크레이션 센터 무료 이용, 사우나 50% 할인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Falling in LOVE package Ⅰ은 철속 있는 기적에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또 Falling in LOVE package Ⅱ는 연인을 위한 패키지로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과 객실 내 레드 와인 1병 등이 추가되며 가족을 위한 Falling in LOVE package Ⅲ는 패키지 Ⅱ의 혜택과 함께 르네상스 니만의 피자 1판과 음료 2잔, 특별 선물 등이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피해 막으려면

등록업체 여부 확인, 계약금은 나눠 지불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인테리어 공사 피해 177건 중 50.3%가 부실 공사 때문에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5.1%에 달했다.

건축 모바일 서비스 기업 머스트아이디어는 인테리어 시공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 업체 견적 확인 후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고 ▲인테리어업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계약서와 견적서를 꼼꼼하게 비교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보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 받으며 ▲계약금은 반드시 나눠서 지급하고 공사 마무리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고 ▲공사 시작 전에 전체 공시 일정표를 받고 ▲공사 진행 때 현장을 직접방문해 담당자와 시공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양일기자 jonts@

스크린 주연 신고식 '터널 3D'의 정·유·미

드라마에서 못한 감정 표출 위해 공포영화 선택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현장은 '끈끈함' 그 자체
"일상 연기도 무게감 있게 하는 배우 될래요"

"첫 주연 영화? 과정일 뿐이죠"

"영화 주연 타이틀을 달고 인터뷰하는 게 조금은 부담돼요. 아직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첫 주연 영화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지금껏 이어온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정유미(30)는 신중하고 솔직했다. 데뷔 11년 만에 스크린에서 첫 주연을 맡았지만 쉽게 들뜨지 않았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20일 개봉하는 영화 '터널 3D'는 폐탄광에 건설한 리조트를 찾은 젊은이들이 의문의 사건으로 터널에 갇혀 하나 둘씩 사라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 호러영화다. 국내 최초로 풀 3D 카메라로 제작된 작품으로 정유미는 수줍음 많지만 세심한 성격을 지닌 여대생 은주를 연기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 정유미의 배우 활동의 시작은 영화였다. '싱글즈' '실미도' 등에서 단역으로 모습을 비췄던 그는 '너는 첫 ... 뷘더플 라디오'에서 조연으로 활약하며 차곡차곡 연기력을 쌓아왔다. '터널 3D'는 3년 만의 영화이자 스크린 첫 주연작으로 정유미의 필모그래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정유미는 "현장에서는 젊은 연기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촬영해서 주연이나 조연 같은 거창한 생각은 없었다"며 수줍은 미소를 보였다.

"영화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드라마는 영화와 달리 제약되는 것도 많고 감정 표현에 한계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공포영화는 감정을 원자 ... 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라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화 속 은주는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행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친구들 사이에 묻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지만 영화 중반 이후 일련의 사건 속에서 큰 진폭의 감정 변화를 보여준다. 정유미가 '터널 3D'에 매료된 것은 3D 공포영화라는 장르적인 흥미,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모두 전하는 은주의 감정적인 호흡에 있었다.

캐릭터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연기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았다. 후반부의 감정 폭발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해 초반부는 감정을 최대한 누른 채 연기해야 했다. 그만큼 답답함도 많이 느꼈다. 캐릭터 변화가 어색하지 않도록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했다. 실제 폐탄광과 석탄 가루를 뿌린 세트에서 진행한 촬영도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영화 현장은 "끈끈함"이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영화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케이션 장소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머물면서 촬영을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요. 연기할 때나 사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다 보니 사람들을 일로 만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나리오도 미리 나와 있으니까 연기력으로도 도움이 많아 되고요."

정유미는 '터널 3D'에 대해 "아쉬움도 조금은 남는다"고 밝혔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연기에 대한 아쉬움이다. "예전에는 작은 것들에 많이 집착했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에 집착해서 혼자 힘들어 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앞으로도 연기는 계속할 것이고 부족함은 다음 작품에서 채워나가면 되니까요."

단역과 조연을 거쳐 이제는 주연 자리까지 올랐지만 정유미는 데뷔 초반에 가졌던 고민과 생각들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인기에 도취되지 않고 자신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줄 아는 그 모습에서 배우 정유미의 진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고두심 선생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일상적인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진정성 있는 배우요. 그러려면 연기도 오래 해야겠죠?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준지

'슈퍼스타K' 부진 딛고 새로 태어난다

18일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엠넷 '슈퍼스타K 6'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김범수(왼쪽부터), 윤종신, 백지영이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시즌 최초 심사위원 4인 체제 참가자 사연보다 노래로 승부

엠넷 '슈퍼스타K'가 여섯 번 째 시즌(22일 첫 방송)의 막을 올린다.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을 이끌고 서인국·허각·버스커버스커·존박·강승윤·울랄라세션 등 수 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슈퍼스타K'는 지난 시즌 반복되는 내용과 악마의 편집 등으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제작진은 심사위원을 3명에서 4명(이승철·윤종신·백지영·김범수)으로 늘리고 예선 지역도 국내 14곳, 해외 5곳 등으로 확대해 숨은 인재 발굴에 나서는 등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무현 PD는 18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슈퍼스타K 6' 제작발표회에서 "지난 6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편집 기교나 구성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며 "지난 시즌이 잘 안 된 이유는 오디션 자체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엔 7개 지역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참가자의 50% 정도가 이미 '슈스케'에 지원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안 가본 지역을 가서 새로운 얼굴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들이 '슈스케'를 보는 첫 번째 이유가 노래다. 지난 시즌에 제작진이 노래를 꾸미주기 위해 (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걸 놓쳤다. 이전까진 노래가 굉장히 많게 나갔다면 이번엔 사연의 비중을 줄이고 노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종신은 "'슈스케'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며 "시즌1부터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제 몫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승자 결정에 있어서 실력보단 인기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기웅 엠넷 국장은 "심사위원 점수 비중이 높으면 높은 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문자 투표 비중을 늘리면 또 인기투표란 말이 나온다"며 "올해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 방식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엠넷 '보이스 코리아'에 이어 '슈스케'의 심사를 맡게 된 백지영은 "'보스코'는 친정 같아서 '슈스케'에 시집왔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김범수는 "참가자들이 편하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고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승철은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인 '온 캠페인' 일정과 겹쳐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황익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샤이니 태민 첫 솔로 베일 벗다

타이틀곡 '괴도' 일렉트로 스윙 장르 댄스 곡 수록

샤이니 태민(사진)이 데뷔 6년 만에 첫 솔로 활동에 나선다.

태민은 18일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 미니앨범 '에이스'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괴도'를 비롯해 총 6곡이 수록됐다. '괴도'는 강렬한 신스 베이스와 독특한 퍼커션의 조화가 돋보이는 일렉트로 스윙 장르의 댄스 곡으로, 철벽같은 여자의 마음을 훔치러 가는 스토리를 담았다.

더불어 이번 앨범에는 최강창민(동방신기)·종현(샤이니)·카이(엑소) 등 SM 가족들의 지원 사격으로 화제를 모은 '에이스'와 '프리티 보이'를 비롯해 실험적인 색깔의 크로스오버 댄스 곡 '익스체리언스' 등이 수록 됐다. 사랑에 빠진 심적 갈등을 솔직하게 그린 업 템포 팝 댄스 곡 '거절할게', 몽환적인 느낌의 미디엄 템포 R&B 곡 '소나타' 등도 담겨 있다.

테디 라일리, 더 언더독스, 토마스 트롤슨, 켄지 등 국내·외 히트메이커들이 대거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현정기자

SM, 독일 '레드닷' 8개 본상 수상

세계적 디자인 시상식 - 슈주 5집·엑소 1집 등 선정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에서 8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이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 중의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의 패키지 부문 ▲슈퍼주니어 정규 5집 '미스터 심플' ▲소녀시대 정규 3집 '더 보이즈' ▲샤이니 정규 3집 '더 미스테리어스 오브 유 미 어스'의 미니 4집 '셜록' ▲에프엑스 미니 2집 '일렉트로닉 쇼크'와 정규 2집 '핑크 테이프' ▲엑소 미니 1집 '마마'와 정규 1집 '엑소 엑소/리패키지 으르렁' 등 이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IDEA 어워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다. 제품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어워드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수상작을 결정한다.

한편 SM은 지난 1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엑소의 BI(브랜드 아이덴티티)과 엑소와 소녀시대 음반 패키지 등 4개 작품이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하반기 가요계 키워드는 '완전체'

JYJ·시크릿·카라 이어 빅뱅 솔로 내공 쌓아 팀 활동 재개

그동안 솔로 활동에 집중하던 아이돌 그룹이 올 하반기 '완전체' 컴백 소식을 알리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팝 개척자 JYJ가 3년 만에 돌아왔으며 걸그룹 시크릿과 카라(사진)도 완전체로 컴백했다. 또 그룹 빅뱅과 티아라, 2PM, 슈퍼주니어 등도 컴백을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가요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드라마·뮤지컬·영화·솔로음반 등으로 개별활동을 펼쳐온 JYJ는 2011년 이후 3년 만에 정규 2집 '저스트 어스'를 발매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앨범은 12만 장을 팔아치웠고, 해외 7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걸그룹 시크릿도 지난 11일 미니 5집 '시크릿 서머'를 발매, 타이틀곡 '아임 인 러브'는 공개 후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완전체로 돌아온 시크릿에 가요팬들이 환호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열기는 4인조로 팀을 재편성하고 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카라가 이어 받는다. 카라는 18일 미니 6집 '데이 앤 나이트'를 발표하고 컴백했다. 히트 프로듀서 집단 이단옆차기와 손잡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타이틀곡 '맘마미아'는 강렬한 비트의 경쾌한 댄스곡으로 화려한 손동작과 복잡한 동선이 주를 이루는 '락킹댄스'를 전묘에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데뷔 8주년을 맞은 빅뱅도 완전체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 2014' 무대에서 리더 지드래곤은 "빅뱅이 앨범을 낸 지 오래됐다. 제가 열심히 작업을 해야 하는데 노느라고 못했다. 죄송하다"라며 "어쨌든 열심히 작업을 해서 꼭 올해 안에는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지연과 효민의 솔로 활동으로 주목받은 티아라는 다음달 컴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어게인 1977'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외에도 그룹 2PM과 슈퍼주니어가 다음달 완전체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정성훈기자 [illegible]@

전 남편의 결혼식,
하늘에서 시체가 떨어졌다!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

my secret hotel

킬.링.로.맨.스

연출 홍종찬 극본 김도현 | 김예리

오늘 밤11시 tvN 방송

'감성 발라더'의 변신은 무죄

성시경 '케이블 왕자'로… '감성 변태' 유희열 방송 종횡무진

감미로운 목소리와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던 발라드 가수들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발라드의 왕자 성시경은 JTBC '마녀사냥'을 시작으로 각종 프로그램의 MC자리를 꿰차며 '케이블의 왕자'로 거듭났다. 성시경은 MBC FM4U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의 DJ로 활동하던 당시 "잘 자요"라는 클로징 멘트로 여성 청취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성시경이 늘 다정다감한 모습만을 보여준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청취자의 사연에 날카로운 독설을 날리거나 냉정한 조언을 하는 등 의외의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성시경의 의외성이 빛을 발한 프로그램은 바로 '마녀사냥'이었다. 본격적인 '19금 토크'를 지향하는 '마녀사냥'에서 성시경은 신동엽·허지웅·유세윤 등 쟁쟁한 입담꾼들 사이에서 미워할 수 없는 잘난척쟁이 캐릭터로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지난해 '마녀사냥'에서 성시경은 KBS2 '1박2일' 하차를 언급하며 "고정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 하나인데 모든 걸 쏟아낼 것"이라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후 그는 JTBC '비정상회담', tvN '대학토론배틀 5', SBS '도시의 법칙' 등에 연이어 캐스팅되며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성시경이 '비정상회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잘난척쟁이 캐릭터의 연장선에 놓여있으나 '대학토론배틀 5'에선 다정한 학교 선배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법칙'에선 내레이션을 맡아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그룹 토이로 활동하며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감성 변태'라는 별명을 얻은 지는 이미 오래다. 그는 KBS 2FM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KBS 2 '유희열의 스케치북', tvN 'SNL 코리아' 등을 통해 감성 변태라는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그는 지난해 MBC '무한도전' 외 '무도 가요제'에 출연해 1990년대 풍 알앤비 비트에 코믹한 가사가 어우러진 '플리즈 돈 고 마이 걸'이라는 곡을 만들어 감성 변태 캐릭터의 정점을 찍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른 유재석은 고급스러운 비트와 어울리지 않는 가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플리즈 돈 고 마이 걸'은 발표 후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해 작곡가 유희열의 변태 감성이 통함을 증명했다.

현재 유희열은 20년지기 윤상·이적과 함께 tvN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청춘'에 출연 중이다. 남미 페루로 떠난 세 사람은 낯선 환경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특히 유희열은 맏형 윤상과 막내 이적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두 사람이 잠든 사이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숙박업소, 교통편 예약을 도맡아 하는 등 듬직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illegible] 기자

노래부른 김수현 中 언론 메인 장식

'제2회 난징 유스 올림픽' 주제가 열창

배우 김수현이 지난 17일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와 일간지 메인을 장식했다.

김수현은 지난 1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최하는 '제2회 난징 2014 유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가수 장징잉·장제, 러시아 가수 카트마 리에와 함께 올림픽 주제가 '다엔광웨이 라이(미래를 밝히자)'를 부르며 개막식을 마무리했다. 수준급 이상의 가창력과 중국어 발음으로 현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스 올림픽' 개막식의 총 연출을 맡은 천웨이야 감독은 "김수현은 무대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다"며 "전세계 수십 억 시청자가 지켜보는 공연이었음에도 그는 훌륭했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각국 대통령이 참석했고 행사는 중국 CCTV를 통해 전세계 30억 시청자에게 생중계됐다. /[illegible] 기자

김수현이 16일 열린 '제2회 난징 2014 유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주제가를 열창하고 있다.

"현실적이라고 시청률 잘 나오지 않아"

'유혹' 새로운 시작… 권상우·최지우·이정진이 전하는 관전 포인트

배우 권상우(사진)가 "드라마가 현실적이라고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다"고 SBS 월화극 '유혹'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18일부터 '유혹'은 KBS2 '연애의 발견'과 동시간대 경쟁을 벌인다. '연애의 발견'은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18일 일산 SBS에서 열린 드라마 간담회에서 권상우는 "현재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는 가장 비현실적인 MBC '야경꾼일지'"라며 "'별에서 온 그대'도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이라고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할 지가 관건"이라며 "'유혹'의 제2막 관전 포인트는 큰 그림보다 매 장면에서 보여주는 눈빛이나 행동들이다.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상우는 작품에서 아내 나홍주(박하선)와의 갈등 끝에 CEO 유세영(최지우)에게 흔들리는 차석훈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해 그는 "차석훈은 불륜을 저지른 인물인데 나쁜 남자가 아닌 '저 남자와 연애하면 설레겠구나'라고 시청자가 느낄 수 있게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모와 재력을 갖춘 남자지만 바람기가 상당한 인물인 강민우 역의 이정진은 이날 "남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국가대표가 경기 하듯이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우리 드라마는 출연진 평균 신장이 가장 높다"며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잘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최지우는 '인물들의 사랑 방식'을 관전포인트로 설명했다. 그는 "차석훈과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게 순탄하지 않다"며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도 궁금하다. 각자의 사랑 방식이 다 다르고 그 부분을 봐 달라"고 말했다.

'유혹'은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가 매혹적인 제안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최지우·권상우·이정진·박하선은 사랑과 불륜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표현해 왔다. 18일 16회부터는 최지우·권상우, 이정진·박하선의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극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illegible] 기자

세상에 하나 뿐인 마법에 대해

유쾌한 웃음·낭만적 로맨스 담은 우디 앨런의 신작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매직 인 더 문라이트

우디 앨런은 희망과 절망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웃음과 냉소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가 삶을 긍정하는 것은 절망적인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 나아가기 위함이다. 그 통찰력이 곧 우디 앨런의 영화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지난해 개봉한 '블루 재스민'은 부조리한 삶에 대한 냉소가 가득 녹아든 작품이었다. 1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매직 인 더 문라이트'에서 우디 앨런은 다시금 유쾌한 코미디를 선보인다. 1920년대 남부프랑스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남녀의 묘한 충돌로 유쾌한 웃음과 낭만적인 로맨스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영국인 마술사 스탠리(콜린 퍼스)다. 그는 중국인 분장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마법으로 부와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다 라고 믿는다. 그런 스탠리가 전 구로부터 영혼과 소통하는 능력을 지닌 심령술사 소피(엠마 스톤)의 정체를 밝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삶은 추하고 잔혹하고 짧다"고 믿는 스탠리는 이성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형이하학적인 캐릭터다. 반면 소피는 "세상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너무 절망적일 것"이라고 믿는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이상학적인 인물이다.

영화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화되는 과정을 통해 크고 작은 웃음을 만들어 낸다. 무뚝뚝한 속에서 다정다감함을 숨여서 드러내는 콜린 퍼스, 그리고 환한 미소로 사랑스러움을 자아내는 엠마 스톤의 연기 호흡이 영화에 유쾌함을 더한다.

스탠리의 말처럼 세상은 추하고 잔혹하고 짧다. 그런 절망을 감춰줄 마법도 알고 보면 모두 허상일 뿐이다. 단 하나,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마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이다.

'매직 인 더 문라이트'는 '블루 재스민'에 비하면 영화적인 짜임새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작은 반전은 극적인 긴장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조롭게 다가온다. 그러나 영화적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과는 별개로 우디 앨런이 전하는 이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만큼은 관객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해적' 손예진 차기작은 스릴러

이경미 감독 신작 '행복이 가득한 집' 주연

배우 손예진(사진)이 차기작으로 스릴러 영화 '행복이 가득한 집'(가제, 감독 이경미)을 선택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국회 입성이라는 행복한 미래를 눈앞에 둔 정치인 부부가 선거 기간 동안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손예진은 이번 작품에서 야망을 가진 정치인의 아내로 자신들에게 닥친 엄청난 사건을 홀로 집요하게 파헤치는 인물 연홍을 연기한다.

연출은 '미쓰 홍당무'로 제27회 청룡영화상 신인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이경미 감독이 맡았다. 이번 작품의 각본도 담당해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스릴러를 탄생시킬 예정이다.

'행복이 가득한 집'은 오는 9월 크랭크인하며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헝거게임' 세 번째 신화

제니퍼 로렌스(큰 사진) 주연의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헝거게임: 모킹제이'가 오는 11월20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베스트셀러 소설 '헝거게임'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다. 2013년 개봉한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에 이어 절대 권력자 스노우 대통령(도날드 서덜랜드)에 맞서는 혁명의 여신 캣니스(제니퍼 로렌스)의 이야기를 그렸다.

국내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한 티저 포스터는 영화 속 캣니스의 상징인 모킹제이의 모습을 담았다. 모킹제이는 [illegible] 캣니스가 헝거게임 출전 시 착용한 브로치로, 모두가 기다려온 단 하나의 희망이자 절대 권력 캐피톨에 맞서는 혁명을 뜻한다. 티저 예고편에서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더욱 풍부해진 스토리, 한층 더 성장한 캣니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은 전작에 이어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제니퍼 로렌스, 조쉬 허처슨, 리암 헴스워스 등 이전 출연 배우들이 함께 한다.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장병호기자

범죄 액션 '기술자들' 크랭크업

김우빈·이현우 주연 … 하반기 개봉

김우빈(사진)과 이현우가 만난 범죄 액션영화 '기술자들'(감독 김홍선)이 지난 12일 총 79회차의 촬영을 마치고 크랭크업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진행된 마지막 촬영은 5억원대의 조각상을 훔친 지혁(김우빈)이 자신을 쫓아오는 보안경비원들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었다. 김우빈은 직접 와이어에 매달려 수준급의 액션 감각을 뽐냈다. 촬영을 마친 뒤 김홍선 감독과 스태프들은 그 동안 고생한 배우들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도 했다.

'기술자들'은 인천 세관에 숨겨진 검은 돈 1500억을 훔쳐야 하는 최고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우빈은 금고털이부터 석조의 작전 설계까지 만능한 멀티플레이어 지혁 역을, 이현우는 천재 해커 종배 역을 맡았다.

또한 고창석, 김영철, 신구 등 연기파 배우들과 임주환, 조윤희 등 젊은 배우들이 총출동해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기술자들'은 후반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박인비 침착함 앞세워 타이틀 방어

LPGA챔피언십 연장서 린시컴 꺾고 2년 연속 우승

골프여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LPGA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박인비는 18일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먼로 골프클럽(파72·67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브리트니 린시컴(미국)과 연장전에 들어갔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박인비는 파를 지켜 보기를 적어낸 린시컴을 따돌리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날 린시컴보다 1타 뒤진 공동 2위에서 시작한 박인비는 전반에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전반에 1타를 줄인 린시컴은 11번홀(파4)에서 3m 거리의 버디 퍼터를 성공, 박인비와의 격차를 3타로 벌렸다.

그러나 박인비는 12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고 반격에 나섰다. 더욱이 린시컴이 이 홀에서 어프로치 샷 실수로 보기를 적어내자 격차는 1타로 줄어 들었다. 이어 14번홀(파5)에서 한차례 기회를 놓쳤지만 박인비는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린시컴을 1타차로 압박했다. 18번홀(파4)에서 세 번째 샷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린시컴은 2m가 안 되는 파퍼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으로 끌려갔다. 같은 홀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는 박인비의 침착함이 린시컴을 압도했다.

박인비는 티샷을 린시컴보다 30야드가량 덜 보내고 두 번째 샷도 그린 뒤 러프로 보내 위기를 맞았다. 두 번째 샷을 그린 가장자리로 보낸 린시컴은 웨지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1.5m 남짓한 파퍼트를 놓쳐 고개를 숙였다. 반면 박인비는 러프에서 친 웨지샷을 홀 1.2m에 보낸 뒤 실수없이 파퍼트를 넣어 승리를 완성했다.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인비는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메이저 왕관을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은 33만7500달러다.

박인비는 또 앞서 열린 세 차례 메이저대회를 모두 우승했던 미국 전수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주 열린 마이어 클래식에서 연장선 끝에 패했던 아쉬움도 깨끗이 털어내고 하반기 대활약을 예고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를 연장전에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이 대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 연속 우승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이후 9년 만에 타이틀을 방어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가 우승을 확정한 순간 동료 선수들이 물을 뿌리며 축하하고 있다(왼쪽). 두 번째 LPGA챔피언십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박인비(오른쪽).

이번 우승으로 박인비는 19일 발표될 세계랭킹에서 한계단 오른 2위에 자리한다.

한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마지막 날 맹타를 휘두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17번홀과 18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하는 바람에 3위(8언더파 280타)에 자리했다. 지난주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은 공동 6위(5언더파 283타)에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장학순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4위 싸움과 김성근의 그림자

풍문이 돌고 있다.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을 둘러싼 소문이다. 특정 팀의 차기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설이다. 야구인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얼마 전 칼럼을 통해 김성근 감독의 행보가 초점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가시화되고 있다.

말 나온 김에 짚어보자. SK와는 결별과정의 악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두산도 송일수 감독이 부임 첫 해여서 교체는 힘들다. 선동열 KIA 감독과 김응용 한화 감독은 올해로 계약이 끝난다. 김시진 롯데 감독은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4강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장담하기 어렵다. 세 구단이 후보라고 볼 수 있다.

풍문은 김성근 감독이 전반기 막판 방송 출연으로 촉발됐다. 당시 KIA-LG의 경기에 아들과 함께 해설가로 나섰고 전반기 결산 프로그램에 나와 돌직구 해설로 눈길을 모았다. 시원한 쓴소리 해설에 많은 팬들은 공감했다. 이와 동시에 프로 복귀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4위 경쟁은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4~8위의 승차가 불과 2경기에다. 감독들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4위를 해야 한다. 살 떨리는 4위 전쟁터에 김성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형국이다. 한 팀만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김성근 감독 얘기는 꿀놀이 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복귀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신하기 힘들다. 아직은 풍문일 뿐이다. 오히려 구단들이 자기 구도를 놓고 전혀 다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참에 쥐고 새로운 얼굴들을 발탁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풍문이 사실일 지는 시즌이 끝나봐야 알 듯 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기성용 프리미어리그 1R 베스트 11

ESPN "맨유 단점 활용한 완벽한 선수" 호평

한국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시즌 1호 골을 넣은 기성용(스완지시티·사진)이 ESPN이 선정한 '1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ESPN은 18일 홈페이지에 3-5-2 전술을 기준으로 팀 오브 더 위크를 발표했고, 기성용은 미드필더 3명 중 1명으로 뽑혔다. ESPN은 "기성용의 활약은 개리 몽크 감독이 기성용을 스완지시티에 잔류하게 만든 결정에 확신을 줬을 것이다. 기성용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펼친 새로운 전술의 단점을 제대로 활용한 완벽한 선수였다"고 칭찬했다.

이어 "기성용은 득점력까지 갖추면서 지난 시즌 선덜랜드로 임대돼 기록한 3골보다 더 많은 골을 터트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수준 높은 플레이로 열심히 뛰었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16일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전반 28분 선제골을 터트려 스완지시티의 2-1 승리에 기여했다. 기성용은 올 시즌 개막전에서 가장 먼저 골을 터트려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기성용의 활약은 [illegible] 이스 판할 맨유 감독의 점규리그 데뷔전에 패배를 안긴 스완지시티의 개리 몽크 감독은 '1라운드 사령탑'으로 뽑혔다.

/용순호기자 [illegible]

'AG 불발' 손흥민 평가전 출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는 손흥민(레버쿠젠·사진)이 다음달 국내에서 열리는 축구 대표팀의 두 차례 평가전에 나와 아쉬움을 털어낸다.

손흥민은 18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베네수엘라전(5일·부천종합운동장)과 우루과이전(8일·고양종합운동장)에 출전할 14명의 해외파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손흥민을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기 위해 레버쿠젠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손흥민과 함께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구자철(마인츠) 등 4명의 유럽파 선수들이 평가전 출전 선수로 뽑혔다. 협회는 25일 K리그 선수를 포함한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표팀은 다음달 1일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된다.

이번 평가전에는 새 감독이 정해지지 않아 신태용 박건하 김봉수 코치가 선수들을 지휘한다. 신태용 코치는 차기 외국인 사령탑과 함께 대표팀을 이끌 한국인 코치로 내정됐다.

/용순호기자

처음
그 부드러운
느낌처럼
부드러운 소주